



##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가 삶을 마감한다.

Todos nacen como originales, pero muchos mueren como fotocopias.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칠레의 속담 중에는 아름다운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하느님은 당신을 창조하고 틀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만큼 아름답고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유일무이하고 반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모상 유사성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유일성을 찾는 것은 일상적인 과제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몸담았던 공동체는 가족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땅,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의 뿌리인 혈통, 우리의 태생적 문화, 우리에게 호홉과 음식을 내주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뒤섞여 순환하며 우리의 삶과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잠재의식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운명이나 우연으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해서 꼭 잊고 있단 뜻은 아닙니다. 잊을 수 없는 일에 관한 말이나 이미지, 충격은, 고통이란 비밀스러운 언어로 다시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만화경의 조각들은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두려움과 증상 뒤에 있는 이유를 맞닥뜨릴 때만 그것을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과거는 고통뿐 아니라 선물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치유는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사랑은 더 강하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때론 사랑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선택하면 치유가 시작되니까, 다른 이에게 헌신하는 것으로도 치유는 가능합니다. 자기 상처를 억눌러야 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누군가 과거와 화해하고 치유하며 한 걸음 다가섭니다.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면 우리의 관계도 뒤따릅니다.

나는 삶의 완전한 인간적인 면에 살고 있다. 나는 삶의 성스러운 면에 살고 있다.

(Fr. 크리스토팔 포네스, 칠레 생활 성가)



## 각 교정시설 세례식



7월 10일(수)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원)에서 2명, 7월 13일(토) 고봉중고등학교에서 3명, 7월 16일(화) 서울남부교도소 공장에서 7명, 서울남부구치소 남사에서 2명, 7월 17일(수) 서울구치소 남사에서 3명, 7월 18일(목) 서울동부구치소 남사에서 2명의 세례식과 7월 16일(화) 서울남부교도소 공장에서 첫영성체 1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라한 봉사자와 수용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각 교정시설 혹서기 지원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3,500개), 서울동부구치소(3,200개), 서울남부구치소(2,400개), 서울남부교도소(1,400개) 모든 수용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 8월 매주 1회(총 9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8월 5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가톨릭회관 3층에서 부위원장 송정섭 시몬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8월 25일 축일을 맞이한 위원장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의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봉사자들은 현대일 신부의 영육간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특송을 준비해 주셨고, 시니어카리타스 합창단도 함께 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8월 6일(화)~9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여름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8월 9일(금) 파견 미사에서 5명의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의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가 언제나 함께할게

탁유주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 묵주 기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탁유주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값진 기회를 제공해 주신 위원회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으나, 깊은 자만으로 십수 년을 냉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접어들어 사업 실패와 깊은 육체적 고통에 허덕이던 중, 피아노 위의 먼지 앉은 성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차근차근 나아가 보렴. 내가 언제나 함께할게.”

제 가슴은 순간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이끌리듯 묵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누적 제작 개수는 약 12,000개가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그 속의 지혜들을 기억하며 무료 치유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받은 후원금은 전액 묵주 제작 비용으로 보냈습니다. 미혼모 센터, 양로원, 피정의 집, 각 본당, 외방 선교회, 중고 거래 플랫폼 등 주님께서는 많은 기회로 이끄셨습니다.

삶을 마치려던 분께서 묵주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장기 시험 준비로 지친 분께서 스스로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셨을 때, 후일 보내오신 합격 문자와 더불어 저는 실로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작 중에 종종 분심과 싸우기도 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작지만 진실한 꽃 한 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에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만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작한 묵주를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기부해 주신 탁유주 자매님의 글입니다. 기부해 주신 묵주는 필요한 형제·자매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제 이름은 뭐게요?

방여형 엘리사벳 \_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대학생 시절 중·고등부 교리교사로 봉사하던 중 소년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는 언니의 말이 오래도록 인상 깊게 남아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도 하고, 제 할 일을 하던 중 ‘이 시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에 2018년 5월 처음 고봉중고등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러 가던 지하철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지고 교문을 통과하던 그때 가슴이 얼마나 쿵덕거렸는지 첫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이 되었던 첫날,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여러 봉사자 선생님과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이 계셨기에 지금껏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의 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며 소년원에서 복귀한 학생도 간혹 만나고, 분류심사원에 다녀온 학생, 보호관찰 중에 있는 학생 등 여러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았기에 고봉에서 만날 학생들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표정으로 교리 교실에 우르르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는 순간, 위압감과 당황스러움은 쉽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쭈뼛쭈뼛 서 있는 저를 아이들 곁으로 안내해 주셔서 아이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정신없이 첫날을 보내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던 저의 일방적인 시선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저의 일방적인 사고가 부끄러워지는 아이들과의 몇몇 일화들이 기억에 남아 지금도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 # 제 이름이 뭐게요?

3주 만에 고봉에 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왜 그동안 오지 않았는지, 다음 주에는 올 건지, 질문 세례를 던지다가 이름표를 가리며 “선생님, 제 이름 기억나요? 제 이름이 뭐게요?”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몇 주 연달아 보던 아이들이기에 기억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불러주었더니 쑥스러운 표정, 만족해하는 표정, 그리고 별 티를 안 내고 싶어 했지만, 슬쩍 올라가던 입꼬리까지. 이름만 기억해도, 이렇게 아주 작은 관심만 보여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이 아이들에게 처음 가졌던 저의 편견과 시각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 #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다 주는 고마움

어느 겨울, 신앙학교 동안 중학생 꾸러기들이 모여있는 조에 나홀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나누고 협조해 주지 않는 아이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다음 날은 다른 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흘을 함께 하다 보니 중학생 친구들만의 귀여운 모습도 보이고 함께 웃고 떠들며 미운 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중 소극적이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였던 한 아이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던 날 상품으로 받았던 캔 커피 하나를 그대로 건네주며 “나흘 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말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 만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캔 커피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간신히 하나를 받았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온전히 저에게 전달해 주던 그 마음이 다른 조로 가지 않고 나흘 꼬박 붙어있기를 너무 좋했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었습니다.

## # 생일 선물

하루는 한 아이가 자신의 생일이라며 생일 선물을 달라기에 ‘그럼 오늘은 특별히 너를 위해 쌤이 꼭 기도할게.’라고 했더니 그게 뭐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저에게 ‘정말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거냐’라며, ‘다음 주에 세례도 받는다, 꼭 기도해달라’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명 한명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그 아이의 죄가 궁금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 왔는지가 궁금해졌고, 사회에 나와 학교 밖,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는 어른으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꼭 필요하신 곳에 저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실제 학생에게 받은 캔 커피입니다.

기억해 두고 싶어 활동 끝나고 나와서 찍어두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주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채 OO\_ 2024년 창업 대출자

2024년 1차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자 창업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받게 된 채OO 님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 현재 업종의 장단점과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제작 업무는 다양한 장단점과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창의성 발휘, 강력한 소통 도구, 다양한 산업 분야 적용 가능, 창업 기회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고품질의 영상 제작을 위한 고비용,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의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카메라 조작, 조명 설정, 편집 소프트웨어 사용 등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단점과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 제작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 조달과 경쟁 환경에서의 존재감 확보였습니다. 자금 조달은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으며, 경쟁 환경에서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블로그,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피드백을 수렴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있다면?

끊임없는 학습과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동향을 파악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에 힘쓸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 ▶ 출소자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불편 사항과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출소자 창업지원 제도의 절차와 관리를 간소화하여 창업자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 대한 창업지원을 확대하여, 창업자들이 더욱 원활하게 지원을 받고,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으면 합니다.

### ▶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기쁨과희망은행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주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섭 신부님.

남북 자치도에 드림장인

입니다.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감 인사했습니다.

제가 장년심 심교로 1년 받고 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 편지 답을 조금 늦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재성사를

하고 난후 제가 너무 바빠서 함께 가려고, 그들이 있는 소모자를 미워할 마음

에 힘들어 하고 있어 신부님께서 다른 소모자를 위해 강요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말을 조금씩 생각해 보고 여기에서 사모임을 해보실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 제가 지워야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저를 가세할

도 어렵다고, 그래서 왜 그들이 사모임을 자처해서 하냐고 주변에서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하나 보다는 제몸이 힘들

어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여기 이 자치도의 사람들

을 버티게 하고 많은 개회차를 얻고 주님을 하는것이 더 귀한

시간이라 판단했고 신부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병화를 주었습니다.

다만. 유익한 것이 화의와 전과로 진행했는데 방향이라 못해서 아쉬운

점입니다. 하루 빨리 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히 사모임 너무 많고

합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제가 열심히 주님을 드드리면 조금이라도

영이 주신게라 알고 진심을 다해 소모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여

기에도 힘들지만 지금 바깥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앞서 되는데 건강관리하시고 휴일은 지금 제 상황에 맞게 건강적 과보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2024년 8월 3일

## 2024년 10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 행사 알림

- 9월 2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9월 5일(목)~12월 5일(목) 2024년 제25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9월 9일(월)~13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의정부교도소 여사
- 9월 11일(수)~12일(목) 해밀 가족 연수 / 태안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7/16~8/14)

2024년 7월~8월에는 강현숙, 김려원 멜라니아, 김주하, 송주형 마틸다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故김미란 모니카**님의 유지를 받은 **곽중근**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아래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